

한국BASF, 이만우 사장 취임



한국BASF는 화학사업부문장에 이만우 사장을 선임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이만우 사장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LG화학을 거쳐 1989년 한국BASF에 입사했다.

한국BASF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담당했으며 취임 직전까지 BASF 아시아태평양지역 건축토목화학사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김영률 사장은 BASF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로 이동했다.

<화학저널 2013/10/31>